



도입원료 영양

◆—지난 2月 한국가금협회 사무실에서 학계 및 사료업계, 부화업계, 약품업계, 사양자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양계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므로서 전체 업계가 나아갈 방향이 추구되어졌다

사회 :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도입원료가격 인상에 의한 영향과 축산업계의 대책 및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원료사료 가격 상승은 사료업계는 물론 축산업계 전체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사료업계, 부화업계, 약품업계 학계 사양가로서의 입장에서 문제점 및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을 기坦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합사료가격 전망에 관해 사료 협회 조홍래 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료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

조홍래 : 세계적인 곡물작황이 나빠지므로서 국내 공급절대량 부족 및 국제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료업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8·3조처로 인한 물가동결을 기준으로 제반요인을 분석한 결과 73년 1월부터 3월간에는 13%, 73년 4~6월에는 50%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이는 원료비, 제조 및 관리비, 이윤, 조세공과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

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요인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건의하고 있지만 배합사료 가격이 3% 물가상승률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현재 정부와 사료협회에서는 ① 2~3월에 13% 인상후 4~6월에 인상시키느냐, ② 한번에 35%를 인상시키느냐 검토중입니다. 인상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언제 또 어느 정도인지는 미정입니다.

사회 : 조부장께서 제시한 배합사료 원가 계산(월간양계 1973년 2월호에 게재)을 근거로 한다면 가격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옵니다. 배합사료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 못하므로 인해 사료의 품질 보장도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부화업계에 종사하시는 김영환 전무께서 가격과 품질 보장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환 : 배합사료가격의 30% 인상은 수긍할 수 있읍니다만 사료가격이 30% 인상될 시에 생산물 생산비는 20~30% 증가됩니다. 현재 생산물가를 고려시 국내 사양규모나 경영의 합리화로 생산비를 절감시키더라도 가격이 20% 이상

가격 인상에 의한

그 대책

□ 때 : 1973년 2월 6일 오후 2시

□ 장소 : 한국 가금 협회 사무실

□ 참석자 : 김 춘 수(한국과학연구소)

조 흥 래(한국사료협회)

오 재 정(흥성사료주식회사)

김 권 수(한국 사료 공사)

김 영 옥(퓨리나 코리아)

□ 사회 : 신 정 재(과학 사료 공사)

김 영 환(천호부화장)

이 경 산(제일사료주식회사)

원 용 택(대한사료)

김 순 재(안양가축위생연구소)

이 병 혁(건국사료)

인상된다면 사양가는 생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양가가 바라는 바는 20% 인상과 동시에 반드시 사료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기록으로 경영 개선되어야

김영옥 : 현재 몇몇 사양가들을 찾아보면 사료의 품질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과거 1일 110g씩 먹던 닭들이 120g씩 섭취하게 되고 산란율도 5% 가량이 떨어졌다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산란 기간도 훨씬 짧아져서 빠른 도태를 시키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여태 우리 사양가들의 경영은 주먹 구구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사료 가격이 인상된다면 여태까지의 경영방식으로는 도저히 경영해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전전을 따지지 않으면 그냥 도산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냐 하는 얘기는 다음과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록을 철저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여 어느 사료가 가장 좋은, 가장 경제적인 사료인가를 선택하여야 겠지요. 또 현재 경영비중에서 과외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없는 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이 되지 않는 한 안됩니다. 이번의 사료가격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축산업의 조세감면이 끝나는 시기가 오면 주먹구구식으로 양계경영을 하는 사양가들은 전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료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경영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사료 가격과 질의 보장은

사회 : 그러면 현재 사료가격과 질 보장문제를 직접 공장에서 생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먼저 대한사료 원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 : 사료 업계의 이러한 파동은 1972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가격을 인상해도 사료의 질은 그때 그 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우선 옥수수 대두박 어분등의 원료구입이 어려워졌고 그 가지수도 격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사료의 단백질 함량에 차이가 많습니다.

옛날 같이 원료 수급이 호전되지 않는한 사료의 질 보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권 : 현실 사양가의 입장에서 볼때 사료 가격이 인상될 시에 상대적으로 생산물 가격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조정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71년도 계란판매가격 10.50원이 72년도 11.19 원으로서 1월 14전이 상승 되었지만 사료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12~15%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만을 보더라도 사료사정은 당시(1971년)보다 엄청나게 악화된 셈입니다. 그러나 사료가격이 인상되지 않고 질이 떨어짐으로해서 사양가는 사료 가격이 오른 것 이상으로 이중 피해를 받습니다.

사료의 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료의 질이 저하됨으로 인해 산란율 감소 및 도태일수의 단축 등으로 실지 피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사료가격은 오르더라도 사료의 질은 펼히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 질만이 사양가를 위하는 길인 동시에 사료공장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현재 사료공장은 실지로 적자는 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사양가의 입장에선 좀더 넓은 기록과 경영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20%가 인상되더라도 생산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문 배합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계장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 사료의 질만 보장된다면 사료가격은 올려도 좋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료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질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귀착되는 것 같읍니다. 국산 어분생산지와 접해있는 군산 제일사료 공장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려 주십시오.



팔리는 사료

이경 : 전근대적인 이야기 같지만 「파는 사료가 아니라 팔리는 사료를 생산케 해야 할 것입니다. 팔리는 사료가 되자면 사료회사는 품질을 향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사료의 질을 규제해도 사료공장에서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사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정규격자체에 의한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품질본위로 생산자가 생산하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사료의 질은 저절로 보장될 것입니다. 국내 단미 사료 자원 및 도입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사료가격이 인상된다고 질보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팔리는 사료를 생산하도록 자유경쟁을 시키므로서 기업적 수단을 발휘하여 적정이윤으로 최대의 수요를 창조할려는 동기 의식을 사료 업계에 조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팔리는 사료를 기대하기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료자원이 고갈된 현 상태에서 현실적인 사료질의 향상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두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양가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 알아 보기로 합시다.

사양가는 능동적 자세로 대처하자

김영환 : 생산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 조절되는 생산물 가격이 양계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때까지는 사료가격 인상이 사양가에게 끼칠 영향은 막중한 것으로 봅니다. 사양가에게 부로일리 생산비가 kg당 30원 계란 1개당 생산비가 2원이 증가되므로(20% 인상시 기준) 사양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양계가의 입장에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친목회를 강화시키고 협동체 제를 강화시켜 사료공장과 사료직거래약품의 공동구입 생산물 가격조성에 참여하여 유동체제의 개선을 해야겠고 기술혁신으로 사양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기록회계장부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경영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 : 김전무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지금 전국에 산재한 양계 구룹들은 단지 약주나 마시고 정보나 교환하는 친목회에 그치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는 단체의 이점(利點)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영개선, 기술혁신, 가격조성 등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겠읍니다. 이러한 구룹이 강화된다면 현존 양계자들이 많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읍니다. 국내배합사료의 질이 저하된 것이 알려진 이상 우리는 앉아서 피해만 볼 것이 아니라 사양가는 단결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 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방에 따라서 유용될 수 있는 사료자원을 보충제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공유 및 비지등은 사료 공장에서 단백질 자원으로 사용하기엔 절대 공급량이 부족하여 부족당하나 사양가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맥아분도 27~28%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료 이용 가치가 높으므로 어느 사료가 몇푼 싸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사양 표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 : 좋은 말씀입니다. 사양가는 사양가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전체업계의 협조가 요구되어 집니다. 이에 양계 업계전체가 공동 보조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때로는 양보도 필요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상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재 : 사료의 향상을 위해선 과당 경쟁이 요구됩니다. 현재까지의 사료업계는 너무 순조롭게 성장해 온 것 만은 사실입니다. 과당경쟁이 생기



므로 해서 단가당 수익성보다는 많은 판매로 수량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경영개선 및 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울러 생산자는 양질의 사료를 염가로 보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화업계로서는 그동안 무절제한 생산으로 양계업 전체및 자체에 무질서를 조장해온 셈입니다. 앞으로 부화장에선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할 것이며 생산량을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닭 품종 자체도 보다 개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료업계에서는 품질인하 이전에 조직 정비, 대리점 제도의 개선, 외상판매 지양등 불설요인을 제거하므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일시적 손익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꼭넓은 계산과 추세를 내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비를 무난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계업 전체의 협동이 요구되어 집니다. 사이비 판매업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믿고 쓰고 팔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업계가 보다 안정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신용의 중요성이 증대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15% 등록 규정이지만 신용을 위해서 16% 단백질 사료를 생산할수도 있으나 반대로 강압적인 규제에 의한 통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앞에서 누차 강조되었습니다. 전혀 규제 방안조차 없는 약품업계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쓸데없는 경비를 줄여서 실효성이 크고 가격이싼 약품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좋은 말씀입니다. 각 업계의 양심이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앞으로 사양가는 전업 양

계로 완전 전향하여 보다 낳은 경영개선에 힘쓰지 않으면 안될 계기가 될 것 같고 다른 분야도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사료가격이 오르면 각 생 산품 가격이 오를것이 전망되어 집니다. 산물가격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서로 경쟁을 시 키므로서 조정되도록 하는게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고 업계의 발전이 기대되는 바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국산사료자원의 이용, 개발, 사료의 질 보장 문제등에 관해 김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산자원의 사료개발 이용은 문제점이 많다.

김춘 : 현재 양계업계의 불황 요인이 사료이고 사료중에서도 박류, 옥수수, 어분 등인데, 이것은 외국에 의존해오던 만큼 국제 사료 수급사정이 좋아지지 않는한 속수무책입니다. 현재 국산 사료자원의 이용개발 여지는 거의 없다는게 출적한 심정입니다. 있다고 해도 양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앞으로 2~3년 후에는 충분한 단백자원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석유단백의 이용을 연구중인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후반기부터 사양가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벗꽃 이용문제를 들면 그 30% 이상의 석유질이 에너지원 및 단백자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가격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공업화되어 대량 생산될시에는 사료자원 부족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각 업계에서는 이러한 자원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하여 근본적 해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료검사규정 개선 많다

사료질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검사규정에는 개선점이 많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성분 분석을 가능한한 가소화성분 분석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조사되고 있는 (단백질, 지방, 조섬유, 회분, 항생제, 비소) 성분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조사, 조회분 대신 칼슘, 인의 함량을 조사하고 에너지도 검사를 해서 검사만으로도 사료의 질을 보장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가소화 성분이나 에너지등의 측정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시행상의 문제가 많습니다만 당국과 업자간의 결충에 의해 충분히 실행가능합니다. 또하나의 규제방안은 사료업체 자체내에 감사제도를 두어 자체내에서 규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식품업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도둑은 막을 수가 있지만 집안도둑은 방지책이 없는 법입니다. 앞으로 사료질 보장은 양계업계의 만년 데제를 위해 꼭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자

김영록 : 사양자는 맨 먼저 정확한 기록으로부터 출발하여 정확한 분석을하여 쓸데없는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고 사료업체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사료회사 중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사료배합을 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개소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5% 필요한 조단백이 검사시에 16%로 나타날 때는 낭비가 됩니다. 이는 회사측의 손해일뿐 아니라 사양가에게도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부족한 단백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니까요, 1500수 수용할 수 있는 계사에 1,000수를 수용하는 것도, 외상값을 늘어놓아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모두 낭비라 봅니다. 이것은 부화업계 약품업계에도 해당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철저한 계산과 철저한 기록과 철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월간양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내어 놓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사료업체의 노장이신 이 공장장님께서 사양가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스스로 해결하자

이경 : 극단적 얘기입니다만 사료 공장은 밀을 필요가 없습니다. 10원을 제공하면 11원을 뺏어 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계업자는 자기 자신밖에 밀을곳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적 견지에서 볼때도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할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국산사료자원의 이용여지가 적다고는 하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도로가에 코스모스를 심지 말고 해바라기를 심읍시다.

김춘 : 해바라기를 심어서 과연 어느정도 공급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연구계, 업계, 사양가가 협력하여 사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이런때 일수록 우리 업계 각 분야가 자체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양가들이 질병으로 인한 피해도 큰 것으로 압니다. 막상 질병이 유발시에 병의 진단을 신속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약품의 남용으로 생산비가 늘어 날 경우도 있겠읍니다. 가축위생연구소 김선생님께서 이에 대한 대안을 들려주십시오.

질병 진단은 전문의사에게

김순 : 저희 위생연구소에는 1일 5~6건의 진단의뢰가 옵니다. 주로 부근의 양계장이며 지방에서는 간혹 찾아옵니다만 숫자가 적습니다. 사양가들이 질병이 유발시에는 꼭 전문수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옵니다.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기엔 지역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많은 것은 잘 압니다. 우선 저희 연

구소에만 해도 일반 검진이 그 자리에서 이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2~3일의 검진기간이 걸리다 보니 치료가 급해 임의로 치료해야만 할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퇴전문의가 흔하지 못한 문제점도 많지만 경비를 줄이고자 전문의를 찾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은 벼티야 할 출로 믿습니다. 지방에는 지방 보건소를 이용하고 서울 근교에서는 직접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진을 받아서 근본적 방역 및 치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예방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겠읍니다. 최근의 일이지만 모 부로 일려 양계장에서 예방을 미루다 보니 출하일이 가까워 졌읍니다. 작업상 귀찮고 하여 늦추다가 3천여수가 뉴캐슬병으로 죽어간 일이 있읍니다. 병이 발생후 치료하는 것보다는 발생전에 완전한 방역에 힘써야 됨을 경험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읍니다.

사회 : 철저한 예방과 정확한 진단이 경영비를 줄이는 것이 첨경인 것과 같이 우리업계가 어려운 난국에서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공존 의식을 갖고 협심하여 지역적으로 업무별로, 국가적으로 서로 단결하여 양계업계 자체의 힘을 크게 길러야 겠읍니다. 이런 단결만이 곧 우리 양계인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므로 양계인의 단체를 키우고 여기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문

본인은 유리브리드 원종농장으로 부터 후불조전으로 산란계 및 육용종 원종계를(G.P.S) 수입한후 한국가금협회에 상기 원종계에 도입에 관한 추천의뢰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협회를 통한 도입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알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추천이전에 수입이 선행되는등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읍니다. 그간 업계에 물의를 드린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우량한 병아리를 생산으로서 양계계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1972년 12월 30일 이계조